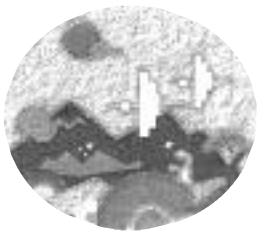


六禮 문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남녀 · 주객의 위차位次

問 가령 부부가 잠자리에 들 때 부인이 남편의 오른쪽에 눕는 게 예법으로 옳은가요? 남편이 팔을 내줄 경우 여자는 그 오른팔을 베고 자야 하나요? 남녀간의 주객主客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옛날 우리 전통의 초례醮禮에서 서동부서壻東婦西라 하여 신랑은 교배례交拜禮에서 초례상의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제사를 지낼 때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이라 하여 건위乾位, 즉 남편이 서쪽에 자리하고 곤위坤位인 아내가 동쪽에 있으니 죽었을 때는 왼쪽, 즉 동쪽이고 살았을 때는 오른쪽인 서쪽이 맞는가요? ——窮問子

答 우선 남녀간의 위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서위상以西爲上, 즉 서쪽을 위로 삼는 도리에 따라 남서여동男西女東, 또는 남우여좌男右女左로 불변입니다. 제사에서 남자의 신위神位가 우서右西이고 여자가 좌동左東이듯이 부부가 죽어 묘를 합폄이나 쌍분으로 쓸 때는 남자가 우서이고 여자가 좌동입니다. 그래서 대개 묘소의 비표碑表를 보면 부인 모씨가 부좌 左되었다고 쓰는데 이는 건위의 왼쪽에 부장葬되었다는 뜻입니다. 윗사람이 앞서 나서면 이를 시종侍從하거나 배행陪行하는 자가 그 왼쪽에서 한 발 떨어져 모시고 갑니다. 이것이 예도인데 그 오른쪽으로 나란히 서거나 나서면 윗사람의 오른팔이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로서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을 때 자연스레 그 남자의 왼팔을 끼게 됩니다. 이때 여자가 남자의 오른팔을 낀다면 남자가 그 오른팔을 구속당하여 어떤 형편에 대처하지 못하고 여자를 보호할 순발력도 잃을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는 항상 남자의 왼쪽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 때도 여자가 남자의 왼쪽에 있어야 하는 게 도리이고 그 팔을 벤다고 하더라도 물론 왼팔을 베어야 그 남자의 오른팔로부터의 보호를 원활히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옛적에 예법을 지키는 사대부가에서는 부부가 한방을 쓰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대부들도 신혼 때에는 긴 베개를 같이 나누어 베는 동침을 하였습니다.

사후의 일에 해당하지만 한 남편에게 부인이 둘일 수가 있습니다. 묘제墓制에서 이럴 경우 남편이 서쪽에 있고 그 동쪽에 첫부인이 먼저 들어가고 둘째 부인이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인정상 둘째부인에게 박하다 하여 남자를 가운데로 하여 두 부인이 그 양쪽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운데가 상위가 된다 하여 이를 중존위中尊位라 합니다. 이는 옛적 삼정승의 위치와도 같습니다. 영의정領議政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좌의정左議政이며 그 다음이 우의정右議政이니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서열이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배행할 때 왼쪽으로 먼젓사람이 가고 다음사람이 그 오른쪽으로 따르는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열은 도승지都承旨、좌승지、우승지, 대사간大司諫、좌사간、우사간 등의 직명에서도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이 이서위상의 서열화인데 그에 비해 주객의 예와 위치는 또한 다릅니다. 향례鄕禮나 상견례相見禮 등에서 주인主人은 그 지위의 존비와 관계없이 동쪽에 위치하고 빈객은 서쪽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초례청의 교배례에서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부는 서쪽에 서니 이는 신랑이 신부를 빈객의 예로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남편은 아내를 평생토록 손님으로 대해야 하는 예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향집 안방에서 부부가 동침할 때 남편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아랫목에 누우면 그 왼팔이 아내쪽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때는 자연스레 그 아내가 남편의 왼팔을 베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까지 예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겠지요.

예법에 제사를 지낼 때도 남자는 젯상 앞에서 동쪽에 도열하고 부인은 모두 서쪽에 서열을 지었습니다. 상례 때도 부인들이 장지에 따라가면 묘광墓壙의 서쪽에 차일을 치고 도열했습니다. 옛적에 가묘家廟, 즉 사당을 참배할 때에도 부인은 모두 서편으로 갈라 도열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주객의 위치 때문입니다.

남의 집 대문을 드나들 때에도 주인은 동쪽으로, 빈객은 서쪽으로 드나들고 솟을대문이 삼문三門이면 주인은 동협문東夾門을, 객은 서협문을 이용했습니다. 승당입실升堂入室의 예법이 있는데 빈객이 예방할 때, 주인은 항상 동쪽의 조계 階를 밟고 당에 올라가 동쪽에서 서향하여 앉고 빈객은 반드시 서계로 올라가 동향하여 수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의 동쪽 주인 자리는 불탈주인석不奪主人席이라 하여 주인이 간곡히 청해도 빈객이 사양하고 여간해서는 가 바꾸어앉지 않습니다. 상석上席인 주인석을 빈객에게 내어주고 객이 이를 받아들일 때는 주종관계主從關係, 즉 객이 상전이고 주인이 그 가신이나 수하일 경우이거나 상대가 집안어른이라야 했습니다. ——弼雲齋

인·물·動·靜

권기성權奇成(世明大 교수 겸 재단이사)씨는 2월 19일 서울대 법대 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지난해 하순 대학교육 총서 '신국제통상론'을 삼영사에서 발간한 바 있다.

권재술權載述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가 3월 2일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 제8대 총장으로 이 대학 교원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취임했다. 권 총장은 1948년생으로 서울대 물리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과학교육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4년부터 교원대에서 교수로 제3대학 학장과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16일 실시된 한국교원대 제8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뒤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이날 취임식을 치른 권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12년 3월1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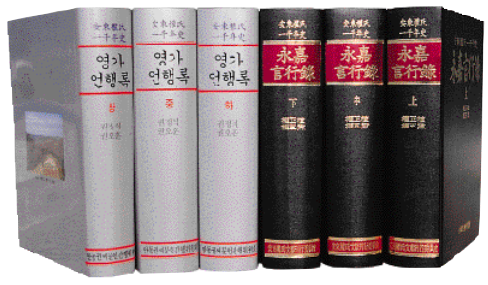
권지안權志顔(추밀공파 정헌공계 남강공)씨는 식물이 병원체의 침입을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 독성물질을 분비해 스스로 방어에 나서는지 규명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부부 과학자로 독일 쾰른에 있는 막스 플랑크 식물육종연구소의 권지안、윤혜섭 박사는 2월 15일 동물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네어SNARE 단백질이 식물에서도 복합체complex를 형성하여 독성물질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외부 병원체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권 박사의 연구는 농작물 생산 증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병원균에 의한 폐해를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 농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박사는 1978년 5월 22일 생으로 연세대 생물학과졸 동대학원 석박사 후 현재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박사연구원으로 있다.

오늘날 貴宅은 家庭敎育에 自信이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

安東權氏一千年史

永嘉言行錄

權正植 · 權五焄
叔姪兩代 3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
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
全3卷 20만원



一擧에 망라 照明되는 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 !
始祖 太師公에서부터 秋淵權 公에
이르기 까지 181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 !
難解하기 그지없는先祖의
詩文과金石文 · 狀記文등의 완벽한 國譯과
총 3270여 면, 원색 사진판 424면에
원고지 2만여 장의 내용으로
인쇄출판문화의 첨단기술을총동원한 최고급 寶藏本

安東權氏大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02)723-4480